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이 있습니다.

2019년도 교회표어 : 하나님 사랑 받고 나누는 교회 (요일 3:16)

1. 감사 : 어제 권성묵 목사 원로 추대와 이정현 목사 위임, 직원 은퇴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. 함께하시고 도와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.
2. 예배시간 변경 및 신설 : 1월부터 예배 시간이 일부 변경이 되고 신설됩니다.
   1부예배 9시
   2부예배 11시
   3부예배 1시(본당, 청년 중심 젊은 예배)
   주일학교 모든 부서 11시
   수요예배 장소 : 본당 예루살렘홀
3. 부임심방 : 담임 목사 부임 심방 중에 있습니다. 중직자부터 심방 중이니, 이미란 전도사를 통해서 심방 스케쥴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4. 달력배부 : 2020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. 예배 후에 세대별로 1부씩 받아 가시면 됩니다.
5. 교적 카드 작성 : 1부, 2부 예배 후 전 교인 교적카드 작성이 있습니다.
6. 사진 제출 : 교회 웹 교적 등록으로 인해서 전 교인 사진이 필요하오니, 사무실로 제출 또는 이미란 전도사에게 모바일 전송하시면 됩니다.
7. 유아세례식(25일) : 부모 중 1명이 세례자이상으로 만2세 아이를 둔 부모는 이미란 전도사에게 유아세례 신청 바랍니다.
8. 중고등부 시찬의 밤(21일) : 이번주 토요일 중고등부 시찬의 밤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.
9. 신 임원명단제출 : 각 남녀전도회 신 임원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10. 목양실 : 앞으로 교인 기도 및 심방시 목양실로 오시면 됩니다.

▣ 친교, 봉사

1. 식당봉사 : 봉사부원들을 위하여 식사시간을 지켜주세요.
   오늘주일 – 7조 (조장 : 최원식권사, 총무: 김명자권사)
   조원 : 양효순권사 최완숙권사 김은식권사 장은숙권사 황현정집사 전남분집사
   다음주일 – 1조 (조장 : 한상숙권사, 총무 : 이명옥권사)
   조원 : 백승상권사 노영희집사 김지혜집사 윤정숙집사 김동언집사
   12월 설거지 봉사 : 아브라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십니다.
2. 주차 안내 및 관리 12월 담당 : 2019년 팀장 김덕재집사, 차장 : 김창호집사, 총무 : 양성태집사 김수용집사, 최상현집사, 전운진집사, 장기관집사

원로목사 권 성 묵(D. Min) 담임목사 이 정 현(Ph. D)

원로장로 조신권 이동일 우상원
은퇴장로 이형근 박국보 최영만 김재봉 홍심표
시무장로 성영환 이영진 김재심 최두현 김도근 홍성필 윤영호 최의철

부 목 사 김현우 노광명(유학)
선 교 사 김정신 이샘나
군선교사 한영호
협동목사 장광원
전 도 사 양현서 이미란
교육전도사 박모세 권세호 라소희
사 무 원 주희경

찬양지휘 강 민 이재웅 문혜진 최정훈
반 주 최원희 고상미 김윤경 우영란 권소연

사 무 실	702-6761~2 717-4842
F A X	702-6763
목 양 실	702-6765
당 회 실	702-6764
방송실,기계실	718-8462
어린이집	702-6766

청암교회 E-mail : cheongam@hanmail.net
Home page http://www.cheongam.or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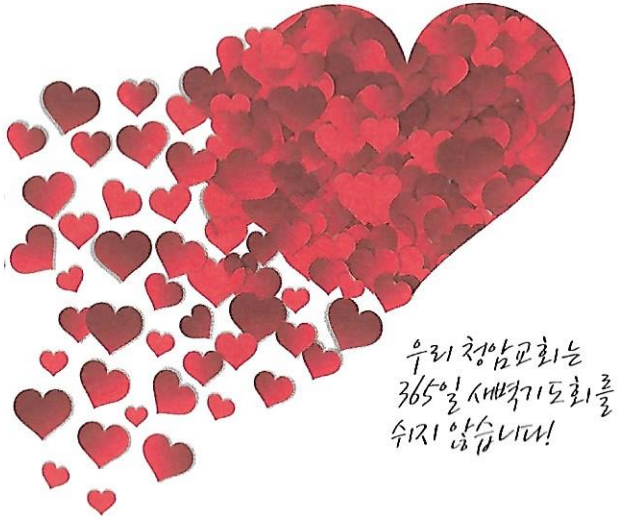
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청 암 교 회 설 립 SINCE 1948.9.19

제71권 50호 2019. 12. 15.

청암교회

2019

하나님의 사랑, 받고 나누는 교회!!



≪이번 주 암송성구≫ "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"(히브리서 12:2)

교회소개 / 청암교회는 1948년 9월 19일 이환수 목사님(교단 총회장)의 주도하에 박형룡 박사님(전 총신대학교 총장)을 비롯한 다섯 명이 천막을 치고 시작함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지금은 제5대로 권성묵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습니다. 본 교회는 한국 최대교단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(합동측) 소속, 성경대로 믿고, 성경대로 살고, 성경대로 전하는 가장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교회입니다. 교회 설립 51주년을 맞이하여 현대식 새성전(1500평)을 건축, 준공하였습니다.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역과 교계를 일깨우며 기여하고자 문을 열어 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오십시오. 환영합니다.